

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

-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에 따른 원탁회의 운영방안-

1. 진행원칙

-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한 책임감 있는 결정
- 존폐 양측이 진행 과정 전체에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운영
-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들불축제의 존·폐 여부를 결정

2. 원탁회의 운영을 위한 준비 기구 마련

-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: 원탁회의의 구성, 운영 등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기구로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(사회학, 행정학, 문화, 환경, 관광 분야의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)
- 원탁회의 검증단 구성 : 원탁회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구로 존·폐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나 당사자 각 1인과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위원 가운데 중립적인 인사 1인 등 3인으로 구성. 원탁회의의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과 자료집 구성, 발표자 선정 등에 관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

3. 원탁회의 시민참여단 구성방안

- 1차 설문조사(무작위 표본추출로 선정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1차 조사, 표본 규모는 3천 명 내외)
-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표본집단을 선정함
- 1차 설문조사 전, 청구인 측과 사업수행자 측의 입장을 지역언론(방송, 신문, 인터넷신문) 등에 동일한 분량으로 게재할 자료 작성
- 1차 설문조사 전, 찬반 양측의 tv토론 진행
- 원탁회의 표본 확보(1차 조사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원탁회의에 초청 / 1차 설문조사에서 찬성:반대:유보 입장을 밝힌 설문조사 참여자를 각각 1/3씩 비율로 최대 210명으로 구성, 성별·연령별·지역별로 안배)

4. 원탁회의의 진행 방안 (5시간 정도 1회 진행)

- 현장 참가자 파악
-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들불축제 찬반 의견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가 담긴 자료집을 사전에 제공
- 자료집 내용을 토대로 들불축제 존·폐 전문가 각 2인의 의견 발표
- 소그룹별 원탁회의 / 소그룹별 진행을 돕는 퍼실리테이터 1인 배치
- 원탁별 토의결과 나온 질문들을 주제로 존·폐 양측의 전문가, 실무자 패널과 함께 질의응답
- 숙의과정을 거친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2차 설문조사 실시
- 결과 분석과 미디어를 통한 보도
- 원탁회의 참가자들에게는 수당 지급
- 들불축제 존폐여부를 결정한 원탁회의 전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백서발간

5. 기타

- 원탁회의는 숙의과정을 통해 존·폐 양측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진행
- 녹색당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제안했지만 진행과정에서 들불축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도 함께 참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도민사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